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제3242호 www.metroseoul.co.kr

백기사하다 망할라

정몽진 KCC그룹 회장

KCC, 7만5천원에 산 삼성물산 자사주 1만원 하락
삼성 합병 성사돼도 주가 21만원 이상돼야 본전
정몽진 회장 등 자칫하면 배임혐의 추궁당할 수도

삼성 측 백기사로 나선 KCC(회장 정몽진)가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KCC는 지난 11일 장외 블록딜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를 주당 7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하향세를 지속했다. KCC 경영진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4300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KCC가 매입한 삼성물산 주식이 본전을 찾으려면 통합법인의 주가는 21만4285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35 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 2.85주가 통합법인 주식 1주가 되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의 주가도 22일 종가 기준 17만2000원이다. 통합법인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돼 주가가 고평가된 측면이 강하다. 22일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78배에 이른다. 정상적인 자산가치에 비해 4배 가까이 주가가 뻥튀기 된 상태라는 의미다.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재편 수혜주로서의 메리트는 소멸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도 자산가치에 근접하는 방향, 즉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KCC가 인수한 삼성물산 주식이 통합법인에서 본전을 찾으려면 주가가 최소한 21만4285원까지 올라가야 한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에 비추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KCC는 평가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KCC 경영진들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배임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정몽진 KCC회장이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항하는 삼성측의 백기사로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양사가 합병을 해도) 합병법인 주가의 상승여력이 일반 지주회사 주가수준을 적용하면 -8.6%이고 시장의 실적추정 평균값을 적용해도 상승여력이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KCC는 향후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손해 볼 위험을 감수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KCC 이사들은 법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상황상 삼성물산 측이 KCC에 비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전일 종가로 결정된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전용기 연구원도 "합병되는 제일모직 주가를 고려했으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금액은 총 6742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6882억원, 영업이익은 551억원이다. 분기 매출액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삼성 백기사' 용도로 썼다는 것도 통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통합 삼성물산과 KCC가 시너지 효과를 내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합병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3년만에 최고치를, 제일모직 주가는 상장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합병이 성공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로 통합법인의 주가는 우상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KCC와 삼성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듯하지만 KCC 제품군의 특성상 단기간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전체 매출 중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1%대인 상태로 단기간에 삼성그룹 대상 매출이 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CC 주가는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지난 11일 49만원 선이었지만 22일 47만8500원으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하베스트 부도 위기… 정부 연기금 몰래 동원

연금개혁 목매던 정부, 국회 자원외교 국조 피해 1700억원 지원 결정
석유공사 앞서 1700억원 지원에 1조원 지급보증… 자원외교 물귀신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사는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실은 모회사인 하베스트사까지 부실 인수였던 셈이다. 석유공사가 천문학적 액수의 지급보증에 이어 거액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급한 불만 끈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몰래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과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 중으로 하베스트사에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하베스트사의 모회사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사에 대한 약 1조원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2일 재소환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700억원(1.9억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하베스트사의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베스트사는 3월 6일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결과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사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하베스트사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 향후 하베스트사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이유였다. 홍 의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내부승인은 자원외교 국조 기간을 피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두언 "靑, 부처인사까지 주물러"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장관의 권한인 부처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며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정 의원 발언은 황교안 총리를 향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총리 인사참사가 거듭되자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켜 기존의 인사위원회 산하에 두었다. 인사수석에는 정진철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송병형기자

채권단과 막판 협상 벌이는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왼쪽) 그리스 총리가 22일 유럽 브뤼셀에서 채권단과의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담판이 결렬될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경제적 공황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디폴트를 우려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칫 은행이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與 "당장 5만명 불이익… 사학연금도 손질"

기형적 형태 발생 막기 위해 개정 앞장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손질에 나선다. 사학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정치권에선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 기여율(보험료율)은 7%로 유지돼 기형적 형태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판단, 새누리당은 법 개정에 앞장 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당에 보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진다"며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가입자 28만명 중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국회)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와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나 태스크포스(TF)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관련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아베의 北日전쟁 시나리오 실현 가능할까

북한이 美 함선 공격하면 北·日전쟁으로 이어져
집단자위권이 무력행사 근거… 일본내 위헌론 비등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복심에 담아둔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털어놨다. 집단자위권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북·일전쟁 시나리오도 원천봉쇄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그동안 설명을 회피해 온 북·일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중의 계획을 밝히는 셈이 된다"거나 "상대방(북한)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며 설명을 피해 왔다.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병력과 함대 집결을 '절박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미 함선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라고 규정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절박한 사태'에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만 용인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에 비로소 집단자위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개별적 자위권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본격적인 북일 간 전쟁의 개시단계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재 전문가들의 잇단 위헌 판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자키 레이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2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 나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조차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한정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진행 중인 기뢰제거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론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20~21일 실시한 자체 전화여론조사 결과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에 달했다고 전했다. 합헌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와 함께 아베 총리의 선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사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8월 15일을 전후해 발표 예정인 종전70주년 담화에 대해 각의결정을 유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개인견해 형식을 취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소식통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용과 관련, 담화에 '사죄'나 '침략'이란 표현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아베 총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연합뉴스

포스트 메르스… 보상·진상조사 그리고 탄저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포스트 메르스 정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대책, 그리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의혹 규명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며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며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특별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부가 회의체를 구성해 메르스와 가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때 지난 목소리라는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고위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입법은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서 계신 곳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위대하고 튼튼한 방역성이며, 이 분들이야말로 영웅"이라며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의료인들의 손실보상을 모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해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추경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면의 위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한국의 허락도 없이 탄저균을 배달한 비밀실험의 진실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총리 "정부와 병원의 조치 면밀히 검토"
이종걸 "탄저균은 대한민국의 전면적 위험"

"베타인터페론·칼레트라 메르스에 효과"

홍콩대 실험결과 … 한국 의사에게도 전파

홍콩대학 미생물학 교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두 가지 약을 발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웬궉융 교수는 베이징 전문가들과 함께 원숭이를 상대로 실험한 결과, 베타 인터페론과 칼레트라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베타 인터페론은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치료에 효능을 보인 약이다. 칼레트라는 HIV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이다. 그는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웬 교수는 "두 가지 약을 사용해 사스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며 "이 약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웬 교수 연구팀은 4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한 번에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진단 장비도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경보가 격상된 지난 8일 이후 21일 정오까지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은 여행객 수는 한국발 여행객 281명 등 309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송병형기자

한일수교 50주년 '대독 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방일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윤 장관에게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成 로비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 조율

야권 정치인 첫 조사… 서면조사 아닌 직접소환으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한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야권 정치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2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부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약속 일정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을 추진한 점을 들어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 2007년 12월 특사를 전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내용 분석과 보강 조사를 거쳐 특사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등 남은 수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번 주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여권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은 기소가 예정돼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농협·국민은행에 외압 행사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특혜를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미란기자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실형 판결

철도부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12월~2011년 9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성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1·2심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있으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 임원으로부터 적지않은 뇌물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합리적 리더십… 조직 내 신망 두터워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는

원칙중시 특수·기획 능통

청와대는 21일 황교안(오른쪽)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현웅(왼쪽)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시무식에서 황교안 총리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가 박수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은 특수수사·기획·법무행정 등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김영삼 정부 임기말 법무장관을 지낸 김종구(74) 전 서울고검장(1997년8월~199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으며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내정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던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보화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영진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법조계의 금품수수 비리를 파헤치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경찰 총경 등을 잇달아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검찰 특수1부장 경험으로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를 특수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시절 국민적 관심을 끈 대형사건 수사는 많지 않았지만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장관직을 놓고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소병철(57·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는 고교·대학 동기동창이다.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명박 정부 이래 이귀남(64·12기)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이다.

김 내정자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런 간접적인 인연은 김 내정자가 호남 출신임에도 여권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며 법무행정을 경험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며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내각을 책임진 총리와 검찰 조직을 통솔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의 사정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상미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이홍원기자 hong@

檢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현대重 압수수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수사관들을 보내 잠수함 건조 및 직원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에 착수한 이래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공장 등이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합수단은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가 잠수함의 성능문제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기자

메르스 진정국면… 조기종식 아직은 성급

확진자 95명·격리자 3833명으로 줄어
방역허점 속속 드러나 3차유행 우려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이 정체상태에 들어가면서 조기종식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말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않으면 28일 이후인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관측은 20일 이후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수와 격리자 수를 통해 가능해졌다.

메르스 발생 후 한 달 동안 줄곧 100명 이상 유지하던 환자가 주말을 고비로 22일에는 95명으로 감소했고 격리자는 총 3833명, 격리 해제자는 모두 9331명으로 줄었다. 이날 전체 격리자(3833명) 중 병원 격리자는 785명이었다.

하지만 환자와 격리자의 감소에도 여전히 메르스 사태는 진행중이어서 자칫 제5차 감염과 3차 유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토요일에 없던 확진자가 21일 3명이 발생하면서 감염자는 총 17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다.

더군다나 확진자 중 한 명은 격리자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다닌 것으로 밝혀져 방역의 허점을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70번 환자가 방문한 건국대병원, 구리카이저재활병원, 속편한 내과에 즉각 대응팀을 보내는 등 조치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반장은 또 "19일에서 20일 동안 카이저 재활병원, 속편한 내과 방문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모니터링을 구리시청 콜센터(031-550-8971~4번까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송요원인 37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마저 감염자로 확진돼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확진자 중 격리 대상자에 빠져있거나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여기에 병원 밖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삼성서울병원에서잇달아 의사환자 등 감염자가 발생해 24일까지 예정된 이 병원의 부분폐쇄 연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반장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선언과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등은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확산을 최대한 막는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방역당국의 메르스 관리·감독의 허술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노조 등 의료단체들은 메르스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삼성서울병원의 폐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병원은 병원 부분 폐쇄 조치와 감염에 철저히 대비한 이후에도 의료진과 환자가 줄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감염된 국내 의사 6명 가운데 4명이, 간호사의 경우 11명 중 4명이 삼성병원 소속이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다.

암 병동에서 아내를 간호했던 166번과 외래진료를 받았던 115번, 141번 환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장 삼성서울병원의 폐쇄 조치를 풀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다.

방역당국이 예상하는 조기종식은 WHO가 정한 전염성 질환에서의 종식 기준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환자가 1명에서 0명으로 된 다음 환자가 한명도 안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전혀 발생하지 않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종식식점이다. 만약 오늘(22일)이후로 환자가 제로면 그 날로부터 28일을 더해 7월 중순까지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메르스는 완전히 끝났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조기종식의 관건은 평택경찰관의 감염경로다. 이 환자의 경로가 불투명해 7월 초까지 기다려본 후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종식 시점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동경희대병원투석실에서도 더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7월 말이나 8월 초를 메르스 종식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등 6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탄저균 반입'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

감염예방법·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시민단체가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등 6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지난 11일부터 21일 자정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 총 8703명의 국민으로부터 고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이들은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했다"며 "고위험병원체를반입하면서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반입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민변 변호사는 "미군 관련 문제에 대해 흔히 소파(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국내법 관련 규정에 대해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주한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 위반과 관련, "합중국군대에게 공여 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욱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탄저균을 실험한 장소 주변은 미군기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고층 아파트와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이 즐비해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렸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한국·호주·캐나다·영국 등에 잘못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평통사 '한일협정 폐기-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 한일수교 50년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시민단체가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 일본 자위권 행사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포털뉴스 장악 프로그램 윤곽

정부·기업에 기사 반론 코너 별도 제공 추진… 시민단체·정치권 술렁

다음카카오가 포털 '다음'에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3분기에 선보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해당 서비스의 도입이 신종 언론탄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제휴 언론사 자격을 언론계에서 직접 판단하는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의 포털길들이기' '언론과 언론사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표류하고 있다.

불과 한달 새 다음카카오가 자사에 서비스되는 언론사 기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도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측 관계자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와 관련해 광고주 협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어떤 내용인지 검토만 진행했다. 아직 서비스 여부를 두고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포털 사이트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검토한 배경에는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사이비언론 행위를 포털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도입이 신종 언론탄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그런 사안에 대해 일체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차원의 입장정리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해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질조차 주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공식댓글은 애초 대기업이 포털에 요구한 것인데 포털의 영향력이 막강한 현재 언론 환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문제"라며 "최근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의춘 국정홍보차관보가 인터넷 새판짜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차관보는 민병호 손발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이번 다음카카오 설명을 들은 게 홍보수석실과 이의춘 문체부 국민소통실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차장은 "정부나 대기업은 현재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막강한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에 대해 1대1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언론 표현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셜 댓글'은 포털에서 부여받은 ID로 접속해 기업이나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댓글을 작성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포털 이용자들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오히려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뉴스제휴평가 위원회'에 이어 '오피셜 댓글' 등을 잇달아 내놓은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와 오피셜 댓글)이번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인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포털업체들이 설익은 대책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배경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의견 조율이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오피셜 댓글'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김 차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센(정부든 대기업이든) 곳의 요청에 대응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털업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라며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미스터피자·본죽·굽네치킨·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 잇단 '갑질' 논란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회장 정우현) 측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의 가맹점 운영 계약을 맺은 이씨는 이듬해 12월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영업을 계속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죽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에 따르면 본사 (주)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는 월 매출 3000만원 이상인 가맹점주에게 본죽&비빔밥 카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는 물론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본가협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반발해 지난 10일 ㈜본아이에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굽네치킨(대표 홍경호) 브랜드를 운영하는 지엔푸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밖에 피자헛·도미노피자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받는 등 갑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들은 가맹점주와의 상생보단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당국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재건축·재개발 훈풍 하반기도 '쭉~'

정부 규제완화 힘 혜택 본격화 될 듯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0일 재건축 정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 개포시영아파트. /뉴시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부산·경남 등 일부 지방까지다.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은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가결시켰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5개 단지(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차' 아파트의 경우 최근 잠실동 '우성 4차'와 함께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반포한양'과 '신반포5차', '삼호가든4차' 등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부 지방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맨션을 재건축한 '광안 더샵'은 1순위 평균 379.08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이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7구역을 통해 분양한 '창원 가음꿈에그린'도 1순위에서 18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과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도 재건축·재개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또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의 경우에도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키로 했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이 제도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유예로 전국 347곳(18만4000가구)의 조합원 4만가구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부터는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됐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택지에 한해 업체와 조합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그만큼 업체와 조합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규제완화와 분양시장 호조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강남의 경우 수요가 많은 반면 물량에 제한적이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면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합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위험요소가 산재한 만큼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절세 HERO, 13월의 보너스를 지켜라!

현대증권 절세 HERO 3종사

올해 1,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24.8만원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올해 400만원 저축하면?
내년 **52.8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IRP(개인퇴직연금)

올해 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9.6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소득공제장기펀드

올해 6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2.4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농특세 고려)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5.4%**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3호(2015년 04월 07일~2016년 04월 05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펀드가입 전(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기업銀, 통큰 투자… 애국심·수익 다 잡는다

'연평해전'에 30억 투자 은행권 첫 투자주관사

지난 2013년 4월 기업은행은 한 영화 제작사로부터 제작자금 관련 대출 신청을 받았다.
당시 제작사는 '크라우드 펀딩(인터넷 모금)' 방식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배급사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실적인 부분만 감안했을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업은행은 감독의 열정과 흥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출이 아닌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금액은 30억원. 이는 전체 제작비 80억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금액으로 은행이 영화 투자주관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애국심 유도

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온 영화는 오는 24일 개봉하는 '연평해전'이다.

'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 전이 열리던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를 다룬다.

우리 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는 등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이다.

정성희 문화콘텐츠금융부 팀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에 희생하는 군인이야기라는 점에서 과거 다른 프로젝트 투자액보다 조금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며 "국민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으로, 흥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평해전' 제작사 대표이자 감독인 김학순 감독의 경우 6년간 제작준비과정을 거칠 만큼 영화제작에 애정과 열정이 있었고, 국내외에서 전례없는 국민모금의 현장을 확인했다"며 "면밀한 내부 검토(수익 여부 등)를 거쳐 이 영화에 대해 대출 대신 투자와 함께 투자주관사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영화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과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기는 한편 애국심과 수익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 가능성 믿고 투자…"수익률 짭짤"

은행 자체적으로도 통장을 선보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앞서 기업은행은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영화 연평해전 통장'을 선보였다.

모두 500억원 한도로 나온 이 예금은 '중소기업금융채권' 또는 '실세금리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기본금리는 연 1.95%다.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 시 연 2.00%, 300만명을 넘을 경우 연 2.10%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고객 500명을 초청해 영화 '연평해전' 시사회도 열었다.

이날 시사회에는 거래고객과 제작비 모금 후원자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문화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콘텐츠 전담 부서인 '문화콘텐츠금융부'를 만들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투자해왔다.

영화 관련 대출과 직간접 투자 등의 투자규모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8729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1336억원을 문화 콘텐츠에 대출·투자했다.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률도 쏠쏠하다.

실제 '수상한 그녀'(220%)와 '관상'(140%), '명량'(114%) 등의 영화는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 연가시, 끝까지 간다, 신의 한 수도 각각 76.7%, 75%, 55%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지난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해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고, 판로개척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대학로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공간 내에 'IBK기업은행 콘텐츠협력센터'를 설치, 중소기업 애로해결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며 "이번 협약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바뀐 주소 한 번에 전 금융사 변경

내년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서비스

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등 고객의 금전적 손익에 의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서비스된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에까지 변경 주소가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각 금융사마다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우편물 반송 비용과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율은 17%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9.5%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23.0%), 손해보험사(22.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증권(약관)이나 대출연장 안내 등 주요 사항이 반송되거나 미도달 되는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등기우편 550만건, 일반우편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각각 2000원, 270원의 반송물 처리 비용을 적용하면 연간 190억원이 업무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

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주소 변경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들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편물 도달·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를 못 찾아 실효 통지가 늦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는 고객이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해 분쟁이 일곤 한다"며 "일괄 변경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금융 현장·소통으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임종룡 위원장 취임 100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나온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오는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임 위원장의 모든 행보에는 '금융개혁'이라는 목적이 깔려있었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 현장간담회·규제개혁안 내놔…"금융개혁 골든타임 잡는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특히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에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회신하라"며 "전향적인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200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 "현장·소통 중시"…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남아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3월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

다만 집이 있고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백아란기자

중견건설사 '신바람'… 반도·중흥 등 완판 행진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30위 중 23곳이 중견사

#중흥건설이 지난 3월 부산 명지지구에서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에듀오션'은 최고 21.6대 1로 이 지역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데 이어 5일 만에 100% 계약됐다. 명지지구에서 당해지역 1순위 마감은 물론 최단 기간 완판을 기록한 것은 중흥건설이 처음이다.

#반도건설이 5월 대구 신천동에서 공급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387가구 모집에 10만6020명의 1순위자가 몰렸다. 그 결과 올해 대구지역 최고 경쟁률인 평균 273.9대 1을 나타냈다. 앞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선보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도 김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계약을 마감했다.

분양시장에서 중견건설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택지지구 위주의 분양, 뛰어난 상품설계 등을 바탕으로 중견사들이 유독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30위권 중 23곳이 중견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파악됐다. '동대구 반도유보라(반도건설)'를 비롯해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모아주택산업)',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센트럴(우미건설)', '울산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2차(아이에스동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중견건설사 홍보팀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사업에 집중하면서 상품 구성이나 마케팅에 노하우를 쌓아온 게 분양시장 호황기를 맞아 큰 효과를 내는 것 같다"며 "대형사들의 브랜드 아파트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입지·설계 등을 선보이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이달부터 8873가구를 쏟아내는 중흥건설을 비롯해 호반건설, 반도건설, 모아주택사업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흥행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들이 분양을 준비 중인 지역들도 세종시, 송산신도시, 옥길지구 등 유망 택지지구에 몰려 있다.

중흥은 오는 27일 세종시 2-1생활권 M2·L2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1~115㎡, 전체 1446가구다. 시공순위 52위의 중흥은 지난해 1만2941가구를 분양해 대우건설(1만3812가구)에 이어 전체 공급 순위 3위를 기록했다. 경영평가 등급도 AA를 유지해 내실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화성 송산신도시에 이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로 출사표를 던진다. 74~84㎡, 980가구 규모다. 반도건설은 업계 최초로 59㎡ 4.5bay를 적용하는 등 뛰어난 상품 설계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동탄2·세종·평택소사 등 대형 건설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C1블록 '호반베르디움'의 1순위 청약을 24일 받는다. 72~97㎡, 14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호반건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호산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단기간 내 완판 기록을 세우는 등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아주택산업은 8월 세종시 3-2생활권 L3블록에서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84~110㎡, 총 498가구다. 3-2생활권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에 들어서며 테라스하우스 등 신평면 설계가 적용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SH공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서울시 SH공사는 22일 강남구 개포동 공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주관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직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 /서울시 제공

롯데건설, 印尼서 2500억원 발전소 공사 수주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2500억원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에서 그라티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주액은 2억3000만 달러(약 2500억원)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이 회사 자금(30%)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70%)을 통해 자바섬 동부 수라바야에서 75Km 떨어진 지점에 501MW급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인도네시아 업체 후타마 카리야(PT Hutama Karya)와 함께 공사를 한다.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EPC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금융조달 협약이 체결되는 올해 말 착공하며 완공까지는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인도네시아 조코위(Joko Widod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5GW 발전소 건설사업의 하나다. 롯데건설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될 공사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김현갑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화공·산업·발전플랜트 실적을 고르게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이미 진출한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물론 인근 동남아 지역 국가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GS건설, 6676억 규모 2건 수주

국내외 플랜트·인프라 사업

GS건설이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6676억원이다.

GS건설은 대한유화주식회사가 발주한 3113억원 규모의 원 프로젝트(ONE-Project)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프로젝트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대한유화 공장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증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총 22개월이다.

기존 시설로는 연산 에틸렌 49만톤, BTX 22만톤을 생산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에틸렌 80만톤, BTX 30만톤에 추가로 프로필렌 15만톤까지 만들 수 있다. 쿨링 타워(Cooling Tower), 납사 탱크 등 총 10기의 시설도 증설된다.

허선행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이번 공사는 비관계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수주 기반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며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사와 좋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3억2000만 달러(약 3563억원) 규모의 T3008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싱가포르 T3008 프로젝트 계약식에서 오두환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왼쪽)와 추아총켕 싱가포르 LTA 부사장이 계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T3008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즈 지역과 창이공항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43km의 톰슨 이스트코스트 라인 지하철 공사 구간 중 하나다.

GS건설은 43만5000㎡의 토공사와 지반개량공사, 기존 파일 제거와 5895개의 파일 설치를 통해 차량기지 공사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를 맡는다. GS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약 33개월로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다.

GS건설은 지난 5월 싱가포르 건설청이 주관하는 기업단위 환경인증제도(GGBS, Green & Gracious Builder Scheme)에서 최고 등급인 스타(Star) 등급을 획득한 게 이번 수주에 큰 가산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여름 보너스’ 중간배당 시즌… 배당株 뜬다

| 마켓인사이트 |

‘배당확대 정책’ 적용 첫 해 상장사 실적 향상·이익개선 기업들 배당 기대감 높아져

전문가 “배당수익·시세차익 동시 공략…투자가치 충분”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6월 중간배당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올해는 배당주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우호적이다.

우선 상장사들의 2분기·연간 실적이 잇따라 상향되면서 기업 이익개선에 따른 배당금 확대가 예상된다. 또 올해는 정부가 추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배당확대 정책’이 적용되는 첫 해로 기업들의 배당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배당주는 금리를 웃도는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며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종목 가운데서도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폐쇄 결정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23곳, 코스닥시장 8곳 등 총 31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중간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이어서 올해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33개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중간배당을 해온 삼성전자를 비롯해 S-Oil, 포스코, 현대자동차, 영화금속, 삼영엠텍, C&S자산관리, 인포바인, 네오티스 등이 올해 중간배당을 한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현대자동차가 새로 중간배당을 예고해 중간배당금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또 별도 공시 없이 중간배당을 해오던 SK텔레콤이나 하나금융지주까지 포함하면 중간배당 상장사 수는 33곳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주주 환원정책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앞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거 중간배당을 한 상장사의 1년간 주가 성과는 50%를 웃돌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우수했다. 이들 상장사 중에서도 배당액이 늘어난 곳의 주가수익률이 뛰어났다.

김 연구원은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양호한 기업일수록 배당 성장 가능성이 컸다”면서 관심 종목으로 에스오일과 대교, 한국단자 등 3개 종목을 꼽았다.

에스오일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대교와 한국단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4%, 18.0%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에스오일과 한국단자는 지난해 중간배당액을 주당 150원으로 책정했고, 대교는 주당 100원을 중간배당했다.

김영준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기업이익이 정상화되면서 25% 안팎의 배당 증가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05년 이후 고배당지수인 KODI지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여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실제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수요 유입이 6월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상승, 원·달러 환율은 하락 22일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가능성과 월말을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네고)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098.8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8.3원 내렸다. 반면 코스피는 그리스 불안에도 4거래일 연속 올라 205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 73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KDB대우證, 中 환경보호기업 분석

선강퉁 대비 상장 10종목 포함

KDB대우증권은 22일 중국 환경보호기업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검토하는 내용과 관련 기업 20 종목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강퉁(深港通)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10종목 포함됐다.

중국은 환경 오염 심각성이 부각되며 지난해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해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명시해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KDB대우증권은 보고서에서 2015년이 중국 신환경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환경 보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B대우증권 글로벌투자정보 김해영 파트장은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보다 긴 호흡에서 중국의 구조 변화를 바라봤을 때 성장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고르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향후 KDB대우증권은 미국 경기 소비재 기업, 일본 로봇 제조 기업 등 중장기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테마를 선정해 ‘글로벌 산업 분석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경기자

초등생 마스크 안쓰고 등교 메르스로 인한 학교 휴업이 사실상 종료된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진정세… 유커株 꿈틀·백신株 주춤

여행·레저株 오랜만에 활기

여행·레저주 등 메르스 피해 업종의 주가가 메르스 진정세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22일 신세계의 주가가 15.81% 급등한 것을 비롯해 현대백화점(2.74%), 롯데쇼핑(2.49%), 이마트(3.54%) 등 유통업종의 주가는 강세였다.

메르스 여파로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하면서 한동안 부진을 겪은 하나투어(4.12%), 모두투어(4.69%), 레드캡투어(5.65%), 세중(1.44%) 등 여행주와 아시아나항공(5.58%), 대한항공(3.96%), 티웨이홀딩스(8.22%), AK홀딩스(7.34%) 등 항공 관련주도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다.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2.82%), GKL(2.69%), 강원랜드(1.51%)도 상승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유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 달간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화장품과 여행·레저주 등 이른바 ‘유커 수혜주’로 꼽히며 고공행진을 벌인 종목들은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화장품 업종의 시가총액이 한 달간 3조4000억원 가량 증발한 것을 비롯해 백화점, 여행·레저주 등 유커수혜주에서 무려 6조5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다행히 메르스는 지난 20일 추가 환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등 지난 17일 이후 나흘째 추가 환자 발생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생산 업체인 진원생명과학(-9.43%)을 비롯해 이른바 ‘메르스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이날 일제히 급락했다.

마스크 생산업체 케이엠(-12.28%)과 오공(-9.64%), 손 세정제 업체 파루(-4.27%), 크린앤사이언스(-2.17%), 이-글벳(-1.68%) 등이 줄줄이 내림세였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아직 메르스 확산의 추세적인 완화와 종식을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종식보다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진정 모습이 확인되면 주가 조정 폭이 컸던 백화점 등 유통업체, 화장품 브랜드 업체, 면세점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갤럭시S6 '7000만대 판매' 실현 가능성

IT업계 4500만~5500만대 전망
美서 공짜 판매 이벤트 등
신종균 사장 목표 돌파 자신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 목표로 내세운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의 7000만대 판매 달성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등 갤럭시S6시리즈가 올해 4500만대 가량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IT매체 EE타임스는 도이체방크의 월스트리트 분석가 등의 분석을 인용해 "갤럭시S6 판매 성적인 연간 4500만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초기판매량(5000만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나쁘지 않은 실적이란게 IT업계의 평가다. 디램익스체인지는 갤럭시S6 시리즈 초기 출하량을 기준으로 올해 물량을 5500만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제품 출고가를 대부분 지불하고 구입하는 국내 보다 해외 시장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공짜로 판매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는 '아버지의 날'인 21일(매년 6월 셋째 일요일)부터 삼성 스마트폰 4개 모델을 대상으로 2년 약정 조건의 무료 판매 행사에 들어갔다.

무료 판매에 들어간 기종은 갤럭시 S6와 S6엣지와 갤럭시S5, 갤럭시 노트4 등 4가지다. 갤럭시S6와 S6엣지의 경우 지난 4월 출시된 이후 최대 할인폭의 행사로, 21일 현재 아마존 등에서 일제히 무료 특가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신종균 사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수요사장단회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6' 판매량이 7000만대 이상 돌파하며 성공할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반도체의 경우 약세가 전망됐다. 도이체방크는 "올해 PC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9%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반도체 칩도 당초 예상치(6% 감소)보다 큰 폭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올해 2분기에 PC 부문의 반도체 수요는 아시아 지역에서 15~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S6.

관람객들이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아야소피아 박물관에서 55형 올레드 TV로 종교, 예술, 문화 등 터키의 역사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터키 세계문화유산 'LGTV'로 본다

LG전자 55형 올레드TV 3대
이스탄불 박물관서 역사소개

LG전자는 터키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Ayasofia)' 박물관에 55형 올레드 TV 3대를 설치하고 종교·예술·문화 등 터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터키 문화관광청 철저한 검증을 거쳐 터키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픽셀 하나하나가 정확한 색을 구현할 수 있어 문화재의 예술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00만명의 관람객이 올레드 TV로 터키의 역사를 감상했다.

'아야소피아' 박물관은 서기 360년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가 기독교 성당으로 건설했으나 오스만 제국 이후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다가 1935년부터는 국립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발전해 온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충근 LG전자 터키법인장 상무는 "올레드 TV의 압도적인 화질로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인류 문화유산의 감동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LGD 블로그, 방문자 700만명 돌파

하루평균 5000명 다녀가
내달 3일까지 검색 이벤트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는 공식 블로그 누적 방문자 7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블로그 'D군의 This Play(디플·blog.naver.com/youngdisplay)'는 대학생이 운영진으로 직접 참여하는 블로그로 2010년 7월 개설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하루 평균 5000여 명 이상의 방문자가 유입되면서 개설 5년 만에 방문자 700만 명을 돌파 했다.

LG디스플레이는 방문자 7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3일까지 공간검색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디플 700만 축하해요'란 문장을 검색해서 '좋아요'를 누른 숫자가 '700'으로 끝나는 장면을 캡쳐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최신 노트북과 스마트워치, 21대9 시네뷰 모니터, 영화 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대학생 블로그 운영진들이 700만 돌파를 축하하며, 블로그 화면 앞에서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D군의 This Play'는 디스플레이 기술 및 제품은 물론 LG디스플레이 조직문화와 채용 정보 등에 대한 23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 LG디스플레이의 대표적 온라인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해 왔다.

D군의 This Play는 대학생과 네티즌과의 활발한 소통에 힘 입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한국 인터넷 소통 협회로부터 정보통신·전자·부품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등을 수상했다. /양성운기자

뉴 크라이슬러 300C JD파워 초기품질 1위

FCA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뉴 크라이슬러 300C(사진)가 미국 JD파워의 초기품질조사 대형차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크라이슬러 300C 모델이 JD파워 초기품질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초기품질조사는 8만4000명 이상의 2015년형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후 초기 90일 동안의 차량의 디자인과 결함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CA코리아는 뉴 크라이슬러 300C를 7월 7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동부라이텍, 美 겨냥 고천장등 출시

동부라이텍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 리니어 타입 고천장등인 루마다스 리니어 하이베이(LumiDas Linear Highbay) 발광다이오드(LED)조명(사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어 하이베이 LED조명은 120lm/W의 높은 광효율 제품으로 기존 형광등 제품(T5HO)대비 59%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DLC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제품은 콤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로 운반이 편하고 설치방법도 간단하다. 원터치 후크 방식으로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ㄷ'자 브라켓 타입의 팬던트형·로드팬던트형, 체인 브라켓을 이용한 행거형까지 3종의 설치 옵션이 있다. /조한진기자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긴급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고용 차질없이 진행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메르스發 침체 극복 독려 정부에 경제활성화대책 요구

경제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우리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의 실천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복세를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행히 메르스 사태 자체는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경제심리는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불황을 조기종식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2인 3각의 파트너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공인들은 연초 발표했던 투자와 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미루고 피했던 행사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여름휴가를 가급적 국내에서 보내도록 장려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선물하기 등을 통해 기업의 소비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신동열 에쓰오일 부사장(왼쪽)과 김부경 부즈 대표가 22일 캐릭터마케팅 제휴를 맺고 있다.

에쓰오일 '구도일' 체계적 관리 나서

캐릭터 회사 '부즈'와 제휴

에쓰오일(S-OIL)은 캐릭터전문 회사인 부즈(VOOZ)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자사 캐릭터인 '구도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에서다.

이번 협약으로 S-OIL과 부즈는 캐릭터 콘텐츠·상품 개발, 제휴채널 발굴 등 캐릭터 마케팅 전반에서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2012년 탄생한 구도일은 광고캠페인, 프로모션·이벤트, 주유소 시설물 등 마케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부즈는 국내 캐릭터 전문업체로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캐릭터 '뿌까'를 보유하고 있다.

S-OIL과는 구도일 캐릭터 개발, 캐릭터 페어 공동 참가, 콜라보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이정필기자 roman@

아우디코리아, 원주서비스센터 확장이전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공식 딜러인 한서모터스(대표 박용환)가 아우디서비스원주(사진)를 확장 이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아우디서비스원주는 중앙고속도로와 원주 외곽순환도로, 아우디 원주전시장이 인접해 있는 원주시 관설동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해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연면적 2265㎡, 지상 2층 규모다. 수리공간인 워크베이가 총 13개 설치돼 하루 최대 50대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기계 설비를 구축한 판금·도장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정필기자

공정위 칼날, 현대로지스틱스로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관련 롯데그룹 매각전 거래내역 추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에 이어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기업이 바뀐 현대로지스틱스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롯데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측이 지분 88.80%를 보유했던 곳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아닌 현대그룹 계열사 당시 현대로지스틱스의 내부거래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는 올해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168억원의 매출을 냈다. 매출 2357억원의 7.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동기 현대로지스틱스는 특수관계자로부터 42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매출 2345억원 대비 18.16%에 이르는 수치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해 9월 최대주주가 현대상선에서 이지스일호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현대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지스일호는 일본계 오릭스PE(프라이빗에쿼티)가 35%, 롯데쇼핑 등이 참여한 롯데그룹이 35%, 현대상선이 30%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88.80%)과 신주인수권(298억원)을 인수하며 현대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1427억원의 매출을 냈다.

그해 매출의 14.55%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2013년에는 매출의 19.00% 수준인 1772억원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올린 바 있다.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롯데그룹 계열 편입 전후로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 모터스튜디오, 김풍·지누션 초청 '토크쇼'

매월 마지막 금요일 진행

현대자동차 최초의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사진)가 문화공간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토크쇼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인생과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이벤트 '휴먼 라이브러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강남 도산대로 사거리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2층의 오토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된다.

첫 행사는 웹툰 작가이자 요리사인 김풍 작가와 고객 30명을 초청해 '자동차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와 '이 시대가 원하는 일, 재미, 성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22~24일 현대모터스튜디오 홈페이지(motorstudio.hyundai.com)에서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7월에는 한국화가 김현정 화백이, 8월에는 뮤지션과 작가로 활동 중인 '지누션'의 션이 명사로 참석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4년 국내 자동차 메이커 최초로 브랜드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오픈,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전시물과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지난 18일까지 누적 방문객 15만명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현대차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자동차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카메라를 탑재한 미니 모형차를 통해 제네시스 쿠페를 분해한 작품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전송해 색다른 시점으로 자동차 내부를 볼 수 있는 새 전시물로 단장을 마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공개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명사와 함께 자동차와 인생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대한항공, 비빔밥으로 美 입맛 잡다

조리법 소개·시식 행사

대한항공은 미국 아스펜에서 19~21일(현지시간) 열린 '33회 푸드&와인 클래식' 행사에서 비빔밥 기내식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대한항공 조리사는 비빔밥을 만들며 유래와 조리법을 소개했다.

완성된 음식은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나눠줬다.

건강식인 비빔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 3일 동안 준비한 5000인분의 시식용 비빔밥이 동났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한식 기내식 메뉴 개발과 해외 시식회를 통해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일 미국 아스펜에서 열린 33회 푸드&와인 클래식 행사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오른쪽)이 비빔밥 기내식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SKT, 中企와 협력… 스마트홈 플랫폼 강화

YPP,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신제품 연내 출시
집안의 주변기기 네트워크 연결·통제 시스템

SK텔레콤이 중소기업과의 협력 시너지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22일 홈네트워크 전문 기업 YPP(대표이사 백종만)와 사업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홈네트워크는 난방, 조명, 원격검침, 방범 등 집안의 여러 주변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월패드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다.

YPP는 홈네트워크 분야 전문기업이다. 삼성중공업의 홈네트워크 사업부문인"삼성BAHA"솔루션을 인수해 새로운 브랜드인 '브리드(VRID)'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솔루션이 적용된 국내 20만가구의 원격제어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홈 앱을 통해 YPP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홈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10만 가구는 YPP홈네트워크와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면 바로 SKT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 버전의 홈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10만 가구는 스마트홈 인프라의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편리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휴 협약 체결식에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 TF장(왼쪽)과 홈네트워크 전문기업 유시준 YPP 총괄사장이 참석했다. /SK텔레콤 제공

또한 YPP는 SK텔레콤 스마트홈과 직접 연동 가능한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신제품을 연내 출시하고, 향후 해당 월패드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SK스마트홈 인증아파트'로 자동 등록돼 입주와 동시에 국내 최고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20일 자체 개발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에 기반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현재 스마트홈 플랫폼이 탑재된 제습기(위닉스), 보일러(경동나비엔)가 판매되고 있으며 20여개 이상의 업체와 추가 협력하여 연내 10여개 이상의 추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TF장은 "YPP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아파트 홈 네트워크 사용자들도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향후 건설사들과도 협력하여 'SK텔레콤 스마트홈 인증 단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네오플 김명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

'던파' '사이퍼즈' 서비스 강화

네오플은 이사회를 통해 김명현(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넥슨 컴퍼니의 핵심 타이틀인 '던전앤파이터'와 '사이퍼즈'의 국내외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네오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다. 신임 대표이사는 29일 네오플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김명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8년 넥슨에 입사해 '메이플스토리' 해외 라이브서비스팀을 거쳐, 2011년부터 넥슨지티에서 '서든어택'의 개발과 사업을 이끌어 왔다.

특히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라이브게임으로서 '서든어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역대 최고 동시접속자수(35만명)와 PC방 점유율(23.51%) 성과를 내는 등 서비스 10년을 맞은 '서든어택'을 제 2 전성기로 이끌었다.

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네오플 신임 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게임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팀워크 등 네오플이 가진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유저 분들에게 더욱 즐거운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 대표이사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으로, '공각기동대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가칭)' 등을 개발 중인 '기기스튜디오'의 총괄 디렉터로서 네오플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KT, 기가코리아사업단과 5G 올림픽 준비

KT가 기가코리아사업단과 손잡고 5G 올림픽을 준비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인 KT(회장 황창규)는 22일 서울시 광화문 KT 사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가코리아사업단(단장 박광로)과 '5G 기반 ICT 올림픽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가코리아사업단은 글로벌 ICT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2013~2020년)을 추진 중이다.

KT와 기가코리아사업단은 5G 이동통신 시장과 생태계를 조기에 형성하고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실감나는 5G 기반 올림픽으로 구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융·복합된 5G 이동통신 기술에 주력하여 홀로그램과 초다시점 등의 기술로 고객들이 현장감 있는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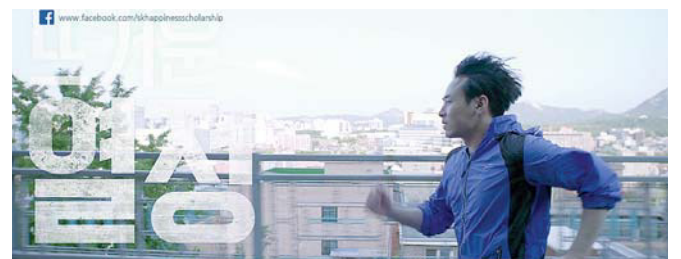
LGU+, 로밍 요금 보험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가 22일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도난시 부정사용으로 발생할 수있는 요금 폭탄을 보상하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 제공

"광주 U대회 응원 댓글 달고 선물받자"

SK C&C, SNS 이벤트

SK C&C의 '광주 U대회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에 응원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SK C&C(대표이사 박정호)가 다음달 2일까지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skhappinessscholarship)을 통해 댓글 이벤트 '나도 응원합니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 C&C가 마련한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감동의 청춘 스토리를 지닌 광주 U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네티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은 경기 기록보다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과 열정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미래 인재를 발굴해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 공식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누른 후 SK 행복장학프로그램 대표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 태그와 함께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SK C&C는 다음달 3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명의 당첨자에게 ▲스포츠 선글라스(2명) ▲스포츠 가방(10명) ▲광주 U대회 폐막식 S석 입장권(4명) ▲광주 U대회 리듬체조 결승전 입장권(4명) ▲아이스커피 기프티콘(100명)을 증정한다.

SK 행복 장학 프로그램은 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신념인 '수인백년(樹人百年) 수인오십년(樹木五十年)'의 SK 인재 양성 철학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문경기자

'高성장' 국내면세점, 불법 리베이트도 급증

저가 덤핑 여행 양산 우려
당국, 대책없이 '나 몰라라'
매출액 등 실체 파악 어려워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나 가이드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 조치가 없는데다 실체 파악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관세청(청장 김낙회) 등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84.44%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의 리베이트 금액도 1005억7300만원에서 3045억9600만원으로 202.86%나 늘었다.

리베이트의 대부분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롯데의 리베이트 규모는 2010년 449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1459억3900만원으로 224.92% 늘었다. 신라는 같은 기간 341억200만원에서 지난해 1153억1800만원으로 238.15% 증가했다.

리베이트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이 여행사나 가이드에 알선수수료 15%가량을 주고 요우커를 대량으로 확보해 오는 저가형 덤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요우커가 구매한 면세품 대금의 10~15%를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 수고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면세점 등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불법적이라는 데 있다. 면세사업자나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면 수입금액의 10%, 대표이사나 가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8.8%에서 35.8%까지 추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세사업자와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업자 동의 없이는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만원 이상·40분 안에… 유통가 '배송 전쟁'

소비자 편리성에 주목
'옴니채널' 구축 본격화

유통업계의 '배송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 구축 전략에서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통 형태를 말한다.

유통업계는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는 상황에서 옴니채널에 주목하고 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핵심 경쟁력으로 배송을 꼽고 이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배달 대행업체인 '부탁해'와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는 '부탁해' 앱·웹사이트에 접속해 씨유 제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40분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는 1500~3000원 수준이며 배달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주문 가능한 품목은 도시락·삼각김밥을 비롯한 간편 식품과 매장 조리식품 소화제·연고 같은 상비약 등 100여 가지다.

씨유는 강남·서초·송파·여의도 내 30개 매장에서 두 달 동안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말까지 서울 16개구 1000여개 점포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도 최근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인 '신데렐라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오전 9시30분 이전에 방송된 상품 가운데 당일 배송 대상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저녁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달부터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에 선보였다. 내달 중에는 청주·창원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온라인몰인 CJ몰도 당일배송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논의 중에 있다.

쿠팡은 지난해 하반기 '2시간 내 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베이코리아도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해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묶음 배송하는 '스마트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점포 직배송 상품에 한해 주문 후 3시간 내에 배달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 구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이나 물류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같은 상황"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미래 유통 형태인 옴니채널에서 상품의 질로 서비스를 판가름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배송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 위해 업체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자체배송업체 속속 등장, 운수업계 혼란

운수업계가 쿠팡(대표 김범석)발 혼란을 겪고 있다.

쿠팡과 같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신생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며 운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은 약 1100명원의 배달 사원인 일명 '쿠팡맨'을 고용해 고객의 주문 상품을 운수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쿠팡을 벤치마킹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업체인 '덤앤더머스'나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정부가 불법 운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쿠팡을 모방한 업체들이 늘어나 운수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쿠팡으로 인해 안 좋은 사례가 남게 되면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할 것이고 운수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운수업자는 운수법으로 묶어두고 통신판매자는 자유롭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 운송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쿠팡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사업만 신고했을 뿐 운수사업자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쿠팡은 지난 4월까지 9800원이하의 제품은 운송비를 받고 자체배달을 했으며 9800원 초과상품은 운송비를 받지 않고 배달했다. 통합물류협회의가 불법 운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9800원이하 상품에 대해서만 자체 배송금지 조치를 내렸다. 9800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값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운수행위가 유상이 아닌 무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물류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배달을 하는 것이기에 운수사업이 분명하며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달 쿠팡이 물류배달을 하는 21개 지자체에 쿠팡이 불법운송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물류협회 측은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법원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무상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성현기자 minus@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를 근거없이 비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쟁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함으로써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본사가 적극적으로 비방광고를 주도한 뒤 나중에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위장해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구 식약청) 등 관계기관은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2012.3.5.방영)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홈쇼핑 '물 나눔 프로젝트'

렌탈정수기 주문· 상담예약 건수 따라 적립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렌탈 정수기 방송을 통한 '물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 나눔 프로젝트'는 정수기 렌탈 방송 시 고객주문 및 상담예약 건당 200원씩 적립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는 고객 참여형 나눔 방송이다. 적립된 금액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정수기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LG·코웨이·동양·쿠쿠 등 총 7개 렌탈 정수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주문 건수에 따라 물이 채워지는 '사랑의 물컵'을 마련한다. 방송 중에 '사랑의 물컵'에 주문 누적 수 표시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물 프로젝트'에서는 6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네이처리퍼블릭, 미스코리아대회 후원

네이처리퍼블릭이 '201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공식 후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합숙 기간 동안 본선 도전자들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도록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헤어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2015 미스코리아 도전자들에게 제공된 제품은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 '슈퍼 아쿠아 맥스 수분크림' 등을 포함해 약 130 품목이다. 한편 올해로 59회째를 맞은 '201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내달 10일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본선 대회가 개최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BAT '던힐 1MG' 14개비 포켓팩 출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는 인기 제품인 던힐 1MG를 14개비로 구성한 '던힐 1MG 포켓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BAT코리아는 올해 2월 '던힐 6MG' 14개비 포켓팩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슬림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국내 성인 흡연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던힐 1MG 포켓팩'의 타르 함량은 1.0mg, 니코틴은 0.10mg로 20개비 던힐 1MG와 동일하다. 가격은 3000원으로 GS25와 CU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유니클로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의류 기부

유니클로(대표 홍성호)는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의류 약 1만여 벌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사단법인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각각 300벌과 1만벌을 전달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中 파고드는 코스맥스·콜마

ODM·OEM 업체 투자 확대 현지 주문 증가에 공장 증설

코스맥스 상하이 1공장 /코스맥스 제공

화장품 업계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업체가 투자를 확대하며 중국 내수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중국 현지 화장품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데다, 중국 시장을 노리는 국내 업체까지 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내에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22일 코스맥스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 두 번째 공장 건설이 한창이다. 주문량이 늘어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

코스맥스 중국 매출은 연결기준으로 2012년 580억원(상해 법인)에서 2013년 822억원, 2014년 1131억원으로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중국 매출의 80%는 계약을 맺은 중국 현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다.

2공장이 완공되면 1공장의 국내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를 소화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온 상하이 1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억 개 정도다. 2공장은 색조 중심으로 생산,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기존 광저우 공장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4000만 개 정도인 이 공장은 증설 이후 1억개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콜마 역시 북경콜마 공장을 증축 중이다. 9월께 완공되면 지금보다 5배 많은 1억2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콜마 측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북경콜마는 지난해 2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스온도 지난 3월부터 중국 광저우 공장을 가동 중이다.

중국에서 신고된 화장품 제조업체는 4000~5000개 정도. R&D(연구개발)나 품질 등 경쟁력에서는 국내 업체가 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한·중 FTA나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 등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 생산은 수출품이 아니어서 관세 인하 혜택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에서 화장품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스레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고 국내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CJ '비비고 왕교자' 여름에도 대박행진

만두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비비고 왕교자는 지난 5월 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겨울철 성수기인 지난 1월 매출 57억원을 넘어섰다. 6월 현재까지도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매출은 300억원이다.

더불어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왕교자가 링크아즈텍 기준 냉동만두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3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태제과(20.5%), 풀무원(14.4%), 동원F&B(11.4%), 오뚜기(7.5%) 등이 2~5위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8월 말까지 맥주 성수기에 발맞춰 TV광고, 프로모션 등으로 올해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장현아 CJ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 총괄 부장은"비비고 왕교자가 올 여름에는 단순히 겨울철에만 즐기는 제품이 아닌 여름철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히트 안주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KT&G, 농협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앞장

사회공헌 확대 MOU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KT&G(대표 민영진)는 22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소재 KT&G 서울사옥에서 농협중앙회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CSR) 활동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 ▲인삼종자 불법유출 차단과 우수 경작 기술 공동 개발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T&G는 복지재단을 통해 7월부터 53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상상 과일바구니'를 매월 정기 공급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간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진 KT&G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수혜대상자와 농업인을 함께 돕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대표 토종기업으로서 우리 제품·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공헌 리딩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한옥스테이’ 모바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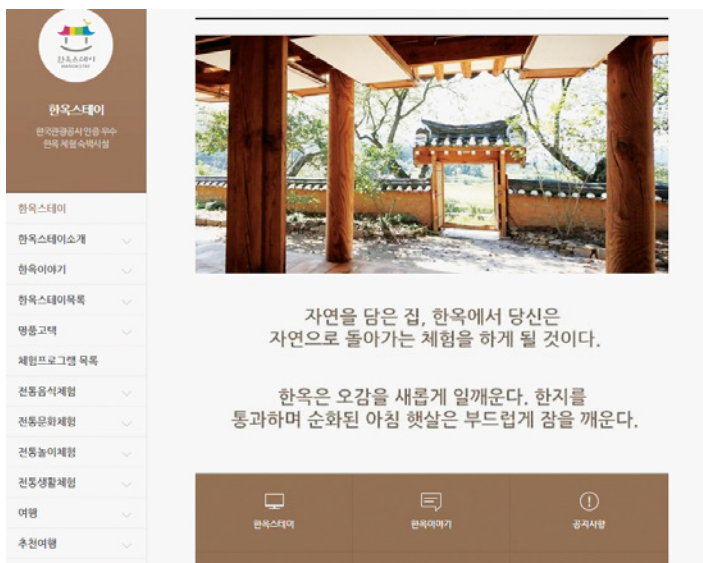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네이버 모바일 웹페이지 론칭 123개소 숙박정보 소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네이버(주)와 공동으로 한옥스테이 모바일 웹페이지(http://hanokstay.modoo.at)를 구축하고 22일 론칭했다.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4월 ‘관광산업 모바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의 ‘모두 모바일 웹페이지’를 활용해 한국관광공사의 우수한옥체험숙박시설인 ‘한옥스테이’ 업체들의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을 진행해 왔다.

한옥스테이 ‘모두’ 홈페이지 캡처.

한옥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한옥체험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우수한옥 체험숙박시설을 인증하는 것이다.

기존 ‘한옥스테이’의 경우 가족형태 등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PC를 기반으로 한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한옥스테이 업주들 대상으로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방법 등 7회의 교육 등을 통해 무료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총 123개소의 한옥스테이 업체가 참여했고, 앞으로 각 업체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숙박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한옥업체들의 숙박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한옥스테이 허브 모바일 홈페이지(http://hanoksta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향후 매년 신규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엔제리너스 ‘엔젤 라떼’ 한정 판매

15주년 기념 매장 당 40잔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는 15주년을 기념해 리미티드 에디션 ‘엔젤 라떼’(사진)를 매장당 40잔 한정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엔젤 라떼는 달콤한 연유와 에스프레소 더블샷이 어우러진 미니 보틀 라떼다. 고객 주문 시 앙증맞은 보틀에 담긴 커피와 아이스컵을 별도로 제공해 취향에 따라 온도를 조절해 마실 수 있다. 가격은 5300원이다.

엔제리너스 커피 관계자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달콤하면서도 에스프레소풍미 가득한 제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에 따라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트랜디하고 신선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샘케이 ‘더블 이펙트’ 자외선 2중 차단

비타민C 안정화 특허 기술 미백·주름개선에도 효과

아무리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라도 자외선이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순 없다. 또한 차단되지 못한 피부 속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각종 피부 트러블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자외선 저항력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출시한 내추럴 스킨 사이언스 코스메틱 샘케이(주식회사 샘케이, www.samkcosmetics.com)의 더블 이펙트 라인(사진)은 피부 겉에서는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속에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까지 막아준다.

순수 비타민C를 함유한 샘케이 더블 이펙트 라인은 ▲더블 이펙트 비타민 썬 프로텍션(SPF50+, PA+++)과 ▲더블 이펙트 비타민 비비(SPF37, PA++)로구성됐다. 피부 겉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외선 차단 성분의 배합으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효과를, 피부 속에서는 국내 유일의 비타민C 안정화 특허 기술로 탄생한 VC캡슐로 자외선 저항력을 키워줘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까지 분해해준다. 또한 3중 기능성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피부의 톤, 탄력, 결까지 관리해준다.

새롭게 출시된 더블 이펙트 라인을 포함한 샘케이 전 제품은 전국 롯데 롭스 매장(LOHBs)과 신세계 SSG닷컴(www.ssg.com), 그리고 자사 쇼핑몰인 www.samkcosmetics.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최치선기자

“대용량 손 소독제로 메르스 예방하세요”

네이처리퍼블릭, 250㎖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겔’

네이처리퍼블릭이 항균 효과 99.9%의 의약외품 손 소독제인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겔’(사진)을 대용량(250㎖)으로 출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으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의 휴대용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겔’ 판매량이 뛰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고객들의 요청으로 대용량으로 출시된 것.

새롭게 출시된 대용량 세니타이저 겔은 알로에와 녹차·복숭아로 구성됐다.

자연의 향을 가득 담아 사용 후에도 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며 펌프형 용기 타입으로 더욱 편리하다. 물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세균 손소독제로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등 유해세균을 99.9% 제거해 손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13년 원브랜드숍 화장품 업계 최초로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겔’ 소용량(30㎖) 20종을 선보인 바 있다.

휴대용은 미니 사이즈로 복숭아와 오렌지·피어니·장미 등으로 구성돼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전용 고리도 판매 중이다. 5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였으며 가방 등에 매달아 놓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김수정기자 ksj0215@

현대약품, 유튜브 인기에 상품권 쏜다

2000만 뷰 돌파 기념 26일까지 경품 이벤트

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2000만 뷰 돌파 기념 ‘고객 감사 경품 증정 SNS 이벤트’를 26일까지 진행한다.

2012년 1월 처음 오픈한 현대약품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hdpharm)은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며 미에로화이바, 글램(GLAMM), 마이녹실, 버물리 등 현대약품의 대표 브랜드를 소개해왔다.

지난 3월 조회수 1000만 뷰 돌파 후 석 달 만에 2000만 뷰를 넘어 최근 그 방문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대약품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객 감사 경품 증정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약품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hdpharm.co)에 ‘좋아요’를 누른 후 페이스북에 게재된 이벤트 게시물을 전체보기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미에로화이바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최치선기자

힐링 공연으로 메르스에 지친 心身 달랜다

강강술래 문화 이벤트
아리랑·드로잉쇼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메르스 여파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지친 고객들을 위로하는 다채로운 힐링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오리지널 드로잉쇼’와 뮤지컬 ‘아리랑’ 공연티켓을 증정한다.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세계 최초의 미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이다. 그림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관객 앞에서 순식간이 이뤄지며 미술의 특수효과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광복 70주년 기념 대형 창작뮤지컬 ‘아리랑’은 1000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한 작품이다.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한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을 담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믿고 보는 배우’ 되고 싶어요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박소담**

“배우는 자신만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미지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것이 저만의 장점이자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박소담(23)의 얼굴은 묘하게 매력적이다.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배우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 그런 신선함 때문일까. 박소담은 류승완·이준익·이해영 등 충무로 대표 감독들의 눈에 들어 지난 한 해를 바쁘게 보냈다. 지난 18일 개봉한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하 ‘경성학교’, 감독 이해영)은 박소담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작품이다.

1938년 경성의 한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 영화에서 박소담은 소녀들을 이끄는 급장 역을 맡았다. 절친했던 친구와 일본어 이름이 똑같은 소녀 주란(박보영)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인물이다. 이해영 감독은 오디션에서 만난 박소담으로부터 “담백한 마스크가 매력적인, 대사 전달력과 감정 해석력이 완성돼 있는 배우”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박소담은 상업영화 첫 주연의 기회를 얻었다.

충무로 대표 감독들 선택한 기대주
강하지만 여린 연덕에 많이 공감해
예술로서 연기 즐기고 싶은 마음 커

박소담도 연덕에게 많은 매력을 느꼈다. 실제로 닮은 점도 많다. 학교 다닐 때 반장과 부반장을 자주 한 것,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집안의 장녀였기에 어릴 적부터 챙김 받는 것보다 챙겨주는 게 익숙한 것이 그러했다. 그만큼 쉽게 공감이 간 캐릭터였다.

“연덕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굳센 여자아이 같죠. 하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연덕이만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져서 정이 많이 갔어요.”

한나절 동안 찍은 수중촬영처럼 힘든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큰 것은 심적인 부담이었다. 그런 박소담에게 힘이 된 것은 이해영 감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엄지원, 박보영 등 선배 배우들의 도움이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친 날에는 진짜 끝난 건가 싶은 시원섭섭함이 마음 깊이 남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박소담의 꿈은 수학 교사였다. 그러나 그 무렵 뮤지컬 ‘그리스’를 본 뒤 배우의 꿈을 갖게 됐다. “그 전에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밴드 보컬을 했었어요. 그런데 뮤지컬을 보니 배우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딸이 배우를 한다는 말에 부모님의 반대가 컸다. 그럼에도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박소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처음부터 영화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외모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그 의문은 스물한 살 여름, 첫 단편영화를 찍으면서 사라졌다. 단편을 거쳐 장편 영화 주연까지 맡게 됐지만 박소담은 여전히 유명해지는 것보다 예술로서 연기를 즐기고 싶다. 박소담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기하면서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문소리 선배님을 좋아해요. 여배우가 하기 힘든 역할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저도 다양한 작품을 하고 싶어요.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 꾸준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배우가 될 거예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상하이 공연 3만여명 동원

그룹 **빅뱅**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연 월드투어 ‘빅뱅 2015 월드투어 메이드(MADE)’의 중국 상하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콘서트에는 회당 1만여명씩 총 3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빅뱅은 신곡부터 히트곡까지 2시간 반 동안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새 싱글 발표하고 컴백

가수 **NS윤지**가 오는 29일 새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JTM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NS윤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밝고 섹시한 매력을 십분 살린 시원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활동 기간에는 더욱 즐기면서 활발히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팬 위한 노래 선물

배우 **이민호**가 생일을 맞이해 팬을 위한 노래를 선물했다. 이민호는 22일 자정 공식 팬클럽 ‘미노즈’를 통해 자신이 직접 작사한 노래 ‘고마워요’를 깜짝 공개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황찬희가 멜로디를 붙였다. 이민호는 소속사를 통해 “팬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대만 팬과 생일 파티

가수 **정용화**가 대만 공연에서 현지 팬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다. 정용화는 지난 20일 대만 타이베이 티엔무 체육관에서 솔로 아시아 투어 ‘2015 정용화 라이브 원 파인 데이(One Fine Day)’를 개최했다. 이날 정용화는 팬과 함께 한 깜짝 생일 파티에서 3개 국어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다.

한국무용가 이경화의 ‘춤 길, 60’

27일 국립국악원 무대

한국무용 전문가인 이경화 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이 오는 27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경화 춤 길, 60’이라는 주제로 특별 공연을 한다.

이경화 이사장은 서울예고 재학시절 최고의 남성춤꾼으로 꼽히는 최현에게 사사했다. 진도 씻김굿의 명인 박병천에게 ‘진도북춤’을, 김병석에게서 농악과 길놀음을 전수받은 뒤 호남춤의 명인 이매방 문하에서 전통춤을 배웠다. 이매방 문하에서 익힌 춤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가 됐다.

공연 주최측은 “한국무용으로 외길 삶을 걸어온 오연 이경화 선생의 60인생을 맞이해 그 동안 갈고 닦은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며 “궁중정재와 전통춤, 민속춤 뿐만 아니라 우리 춤 고유의 움직임과 이미지를 담은 창작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1부 공연에서는 평소 춤 뿐만이 아니라 수묵화에도 일가견이 있는 이경화 이사장이 무대에서 직접 수묵화를 그리고 이 수묵화에 담긴 이미지를 춤으로 표현하는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2부 공연은 궁중정재로 시작해 낭만주의 무용가로 다양한 창작작품과 산조를 남긴 고 최현선생의 작품과 고 박병천 선생의 진도북춤으로 이어진다. 2부공연 마지막에는 150여명의 무용수들이 극장 안에 있던 관객들과 함께 국립국악원 앞마당으로 나가 신명나는 춤판으로 공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문의: 02) 2263-4680 /강민규기자

CHAPTER 1.

낭만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6/4 ~ 6/10]
〈비포 미드나잇〉
〈사랑을 카피하다〉

CHAPTER 2.

예술과 인생

〈마지막 4중주〉 [6/11 ~ 6/17]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CHAPTER 3.

사랑의 속성

〈아무르〉 [6/18 ~ 6/24]
〈우리도 사랑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CHAPTER 4.

나를 찾아서

〈와일드〉 [6/25 ~ 7/1]
〈프란시스 하〉
〈꾸뻬씨의 행복여행〉

CHAPTER 5.

가족의 의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7/2 ~ 7/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자전거 탄 소년〉

CHAPTER 6.

영혼을 울리는 음악

〈비긴 어게인〉 [7/9 ~ 7/15]
〈인사이드 르윈〉
〈위플래쉬〉

주최 • 씨네큐브 ·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흥국생명보험(주)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www.icinecube.com www.facebook.com twitter.com/iCinecube

협력 • 그린나래미디어(주) | 더블앤조이 픽처스 | (주)뮤제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소프트 | (주)블루미지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영화사 진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찬란 | 판씨네마(주) | (주)팝엔터테인먼트 | CGV아트하우스

씨스타·AOA 격돌… 걸그룹 대전 불 붙었다

신곡발표 본격활동 돌입
섹시함·건강미로 맞불

걸그룹 씨스타(왼쪽)와 AOA가 22일 각각 코엑스 아티움과 악스 코리아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컴백 소식을 알렸다. /손진영 기자 son@

여름 가요 시장을 겨냥한 걸그룹 대전이 시작됐다. 걸그룹 씨스타와 AOA는 22일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씨스타(효린·다솜·보라·소유)는 22일 오전 코엑스 아티움에서 새 미니앨범 '셰이크 잇(Shake It)'의 발표를 알리는 쇼케이스를 열었다.

동명의 타이틀 곡 '셰이크 잇'은 히트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을 맡은 댄스곡이다. 강렬한 브라스와 펑키한 그루브가 인상적인 레트로 댄스 트랙이다. 씨스타는 "여름에 걸맞은 시원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청량감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 콘셉트는 악녀를 뜻하는 '사악'이다. 보라는 "'사악'은 사랑스러운 악녀, 그리고 4가지 즐거움(樂)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유는 '건강한 악녀', 보라는 '발랄한 악녀', 효린은 '섹시한 악녀', 다솜은 '도도한 악녀'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AOA(지민·초아·유나·혜정·민아·설현·찬미)는 같은 날 오후 악스 코리아에서 세 번째 미니앨범 '하트 어택(Heart Attack)'의 발매를 맞이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감한형제가 작곡한 타이틀곡 '심쿵해'의 뮤직비디오와 무대가 첫 공개됐다.

8개월 만에 컴백한 AOA는 '스포츠걸' 콘셉트를 내세웠다. 리더 지민은 "'심쿵해'는 첫 눈에 반한 여자의 마음, 설레는 마음을 '심쿵해'라는 단어로 재치 있게 풀어낸 노래"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여름에 나오게 돼 조금 더 시원하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타이틀곡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씨스타와 AOA의 컴백은 여름 가요 시장에서 펼쳐질 걸그룹 대전의 포문을 여는 대결로 관심이 뜨겁다.

씨스타는 "음악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팬 여러분이 다양한 음악을 즐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걸그룹 '대전'이라기보다는 '축제'라고 봐달라"고 말하면서도 "여름하면 씨스타 라는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AOA는 후배 걸그룹답게 "선배들을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팀의 막내인 찬미는 "선배들과 같이 활동하게 돼 영광이고 가까이에서 보며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함께 활동하며 배우면서 동시에 저희만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장병호·하희철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마성의 '된장 베이스' 비법 공개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 40분

길들이기 어렵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성의 된장을 주제로 백종원의 요리 비법이 전수된다. 이번엔 무 하나로 완성되는 만능 비법 시리즈 '된장 베이스'다. 육류를 만나도, 생물을 만나도, 식물을 만나도,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인 백종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된장 베이스' 비법이 대방출된다. 백종원은 뚝배기와 된장 베이스만 있으면 누구나 맛깡패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고양국제고'편 세 번째 이야기다. 체육 요전 오정연은 '눈물 요정'이 된다. 수업 시간 글을 써내려 가던 중 갑자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린다.

◆ tvN '현장 토크쇼-택시' 오후 8시 40분

원조 컴퓨터 미인 황신혜와 엄마의 끼를 쏙 물려받아 방송인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진이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금수저 루머에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소중한 내 '관절'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비밀이 공개된다. 관절은 단순히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온몸을 지탱하는 내 몸의 '중심'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57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1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2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2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2회)	00 화정 (22회)	00 상류사회 (6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하하하>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1회) (재)	10 집밥 백선생 (5회) (재)			50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	◆ 프로야구 (18:30) SK vs 두산 (SPOTV+) KIA vs NC (MBC SPORTS+) 넥센 vs 한화 (SKY SPORTS) LG vs KT (SBS SPORTS) 삼성 vs 롯데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글로벌 특집 (1회)	00 셰프의 야식 (5·10회)	00 쇼킹 70억 (23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4회)	00 오늘 뭐 먹지? (64·73회)	00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2부 케냐의 붉은 전사, 삼부루족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2회)	40 집밥 백선생 (6회)	00 올리브쇼 2015 (22회)	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 2부. 쥐라기 정글		
22시			00 오늘 뭐 먹지? (72·14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7회)	00 영웅이 되고 싶은 남자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9회)	00 신분을 숨겨라 (4회)	00 올리브쇼 2015 (22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슈퍼 탱크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2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4회) (재)	00 메이의 파티쿠킹 (5회) 20 2015 테이스티로드 (14회)	00 <극한직업>겨우살이 채취	00 크로싱 오버	

한국 아쉬운 패배… 김정미 부상투혼에 박수

FIFA 여자월드컵

지소연 결장… 프랑스에 0-3 완패 8강 좌절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다.

한국(18위)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프랑스(3위)와의 16강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한국은 '지메시' 지소연(첼시)이 컨디션 난조와 허벅지 근육 통증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바람에 박은선(로시얀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고, 이금민(서울시청)을 2선 공격수로 배치했다. 좌우 측면 공격으로 전가을(현대제철)과 강유미(KSPO), 미드필더로는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현대제철)이 선발 출전했다. 이은미(이천대교), 김도연(현대제철), 심서연(이천대교), 김수연(KSPO)이 수비를 맡았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위인 프랑스를 상대로 실점 없이 맞서며 상대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전략으로 임했으나 너무 일찍 점수를 내줬다.

전반 4분 마리-로르 델리가 로르 불로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공을 왼발로 밀어 넣어 프랑스가 먼저 득점을 올렸다. 이어 4분 만에 엘로디 토미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 왼발 슛으로 다시 한 번 한국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한국은 전반 24분 전가을의 프리킥을 프랑스 골키퍼 사라 부아디가 잡았다가 놓쳤으나 그 앞에 한국 선수가 아무도 없어 추가 슈팅 기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29분 이금민이 페널티지역 안으로 파고들어가며 기회를 엿봤지만 무위에 그쳤다.

전반 17분에는 설상가상으로 골키퍼 김정미가 쓰러지는 불상사까지 겹쳤다. 김정미는 공중볼을 처리하려고 함께 뛰어오른 박은선(29·로시얀카)의 왼쪽 팔꿈치에 오른쪽 광대뼈를 세게 부딪쳤다. 곧바로 그라운드에 쓰러진 김정미는 통증 때문에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힘겹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는 순식간에 부어오르며 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정미는 포기하지 않고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이후 한국은 전반에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으나 공격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한 가운데 후반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후반 초반에 실점하며 무너졌다. 후반 3분에 선제골의 주인공 로르 델리가 르 소메르의 패스를 받아 이날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3-0을 만들었다. 한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지 못하고 패배했다.

한국은 공격 점유율 62%-38%로 밀렸고 슈팅 수 12-9, 유효 슈팅 수 5-3 등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경기 내용에서 앞섰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22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한국 골키퍼 김정미가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 브라질 제압하고 8강 진출

주최국 캐나다 8강행

호주가 우승후보 브라질을 물리치고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FIFA 랭킹 10위 호주는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멍크턴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브라질(7위)을 1-0으로 제압했다.

호주는 슈팅 수 9-14, 유효 슈팅 수 2-6 등 전체적으로 브라질에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후반 35분에 카이아 사이먼이 넣은 골을 잘 지켜 승리를 거뒀다. 호주는 일본(4위)-네덜란드(12위) 경기의 승자와 8강에서 만난다.

개최국 캐나다(8위)도 스위스(19위)를 1-0으로 따돌리고 8강에 합류했다. 캐나다의 8강 상대는 잉글랜드(6위)-노르웨이(11위) 경기의 승자다.

이외에도 독일(1위)과 중국(16)이 8강 진출을 확정했고 남은 세 자리는 미국(2위)-콜롬비아(28위), 잉글랜드-노르웨이, 일본(4위)-네덜란드(12위) 경기의 승자에게 돌아간다. /하희철기자

◆ 22일 전적

▷16강전

호주 1(0-0 1-0)0 브라질

캐나다 1(0-0 1-0)0 스위스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콘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월드컵 16강 호주와 브라질의 경기에서 헤딩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선수들. /Xinhua=연합뉴스

추신수, 8일만에 2루타… 강정호 '침묵'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8일 만에 장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U.S. 셀룰러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 1번타자·우익수로 선발출전, 5타수 1안타(2루타)를 기록했다. 타율은 0.234에서 0.233으로 소폭 하락했다.

1회초 1루 땅볼, 3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세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쪽 2루타를 쳤다. 14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2루타를 기록한 후 8일 만에 터진 장타이자 시즌 13번째 2루타다. 텍사스는 2-2로 맞선 연장 11회말 무사 주자 없는 상황, 화이트삭스의 고든 베컴에게 좌월 끝내기 솔로포를 얻어맞아 2-3으로 패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번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2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시즌 타율은 0.273까지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2-9로 졌다. /하희철기자

KIA 양현종, 1점대·200이닝 도전

24년 만의 기록

올 시즌 최강의 에이스로 부상한 양현종(27·KIA 타이거즈·사진)이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기록에 도전한다.

양현종은 20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KT 위즈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기고 평균자책점을 1.37로 낮췄다. 이 부문 2위 유희관(두산)이 기록한 2.8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동시에 98⅔이닝을 소화해 최다 이닝 3위를 달리고 있다.

KIA가 전체 일정의 45% 정도를 소화한 점을 감안하면 양현종은 올 시즌 200이닝 돌파가 유력하다. 평균자책점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양현종은 24년 만에 200이닝 이상과 1점대 이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는 투수가 된다.

앞서 프로원년인 1982년 박철순(OB)이 224⅔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1.84를 찍었다. 이후 1986년 선동열(해태)이 262⅔이닝에 0.99라는 무시무시한 시즌을 만들었다. 선동열은 1991년에도 203이닝과 평균자책점 1.55를 달성했다. 이후 200이닝이나 1점대 평균자책점은 몇 차례 더 있었지만 이를 동시에 이루고 평균자책점 1위까지 거머쥔 투수는 아무도 없었다.

양현종은 역대 평균자책점 상위 10위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이 순위는 1993년 선동열(0.78)과 김경원(OB·1.11)이 포함된 이후 22년간 전혀 변동이 없었다. 현재 양현종이 기록 중인 1.37은 역대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하희철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8		1			4
	8			4		7		
1	3	8					4	
			6			2		
		4		7			3	
	5		9		6			
8		9			2	5		
6	2				7			

	3				7		5	
					3	4		
		4		9			8	
8				5		3	6	
3			1		2			4
	7	2		6				5
	5			2		1		
		7	9					
	8		5				2	

스도쿠 정답

4	1	5	7	6	3	8	9	2
9	7	6	8	2	1	3	5	4
3	8	2	5	4	9	7	6	1
1	3	8	2	9	5	6	4	7
5	9	7	6	3	4	2	1	8
2	6	4	1	7	8	9	3	5
7	5	1	9	8	6	4	2	3
8	4	9	3	1	2	5	7	6
6	2	3	4	5	7	1	8	9

2	3	6	8	4	7	9	5	1
5	9	8	2	1	3	4	7	6
7	1	4	6	9	5	2	8	3
8	4	1	7	5	9	3	6	2
3	6	5	1	8	2	7	9	4
9	7	2	3	6	4	8	1	5
6	5	9	4	2	8	1	3	7
1	2	7	9	3	6	5	4	8
4	8	3	5	7	1	6	2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Mayor Park Won Soon, spent 7,540,000 won for Domino's Pizza from January to May

<박원순 시장, 1~5월 도미노피자 값만 754만원>

Mayor Part spent 7,540,000 on a specific pizza brand with business operating expense and shared with other officials.

Some are expecting Park to self explain his action on spending money on a specific foreign brand.

Suspicion is being raised because Park used to work as an executive director of Domino's Korea ten years ago. Critics are questioning about the policy of using business operating fund for purchasing snacks.

Local financial law or any other administrative law does not state that you are allowed to use the business operating fund on purchasing snacks.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서울시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들어 5월까지 총 754만여원어치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업무추진비로 주문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주문처가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해 박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여년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을 때부터 (주)도미노피자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온 정황이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규칙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친구와 유통사업을 하려는데 잘 될까요
지금 하는 관광업이 천직… 즐겁게 일하시길

고민남1 남자 57년 4월 30일 양력 0시 10분

Q 김상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메트로 신문이 전철역에 갖다 놓기에 편하게 전철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회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한데다가 메르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와 함께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될까요? 유통사업이란 게 회원을 끌어 들이고 회원이 회원을 낳아야 번성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이 좋아 네트워크사업일 뿐 망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하여 엄두가 안 납니다.

A 옛 성현 말씀에 현자(賢者)는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우자(愚者)는 마음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귀하는 임수(壬水)생일간이 일지(日支)에 장생(長生:새로 태어남)을 두어 여간한 어려움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신 강한 사주입니다. 강하다는 표현이 왠지 좋은 것 같지으나 편인(偏印: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나와 같은 부류인 용어 비견(比肩)의 왕성한 결합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간과 하는 속성을 지니기 쉬우니 최고에 경지에 오르려다가 오히려 어렵고 외화내빈으로 내면의 고(苦)가 발생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재성(財星:재물과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풍부하고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비정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성을 말함)운이 승발 해야 하는데 귀하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반대로 가고 있으므로 언변이 좋지만 운이 못 따르니 유통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합당 합니다. 유통 사업을 하려면 선택한 아이템이 시대 조류를 타서 계속 확장일로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사업에 수익성이 좋아 동참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야 하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부도가 나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 조차 갖추고 있는지는 알아보셨는지요. 현재 하고 계신 관광업종이 천직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생각 말고 즐겁게 직장생활 하도록 하세요. '물이 샘솟는 바위'과 같은 모습으로 광천수(鑛泉水)니 원류가 풍부하여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여력이 대단하고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활발하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언변이 능숙하고 설득력이 뛰어나 관광 가이드 업이 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3일 (음 5월 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9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것입니다. 61년생 사리사욕을 채우지 마세요. 73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85년생 가족에게 배울점이 많습니다.

50년생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62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74년생 주관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86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으세요.

51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63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87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2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동업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길합니다. 76년생 말을 조심하세요. 88년생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입니다.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게 좋을 듯 합니다.

54년생 귀하가 하기 나름입니다. 66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78년생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합니다. 90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5년생 명랑한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보세요. 67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91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56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8년생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0년생 귀인이 귀하를 돕는 운세입니다. 92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57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을것입니다. 69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81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93년생 과속에 주의하세요.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9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1년생 귀인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83년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밖으로 나가세요.

면세점 복마전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그 기업 홍보 임원이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언론사를 계속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녀 갔다고 기자들이 알려 줍니다. 그렇게 나선다고 될일이 아닌데…"

최근 만난 모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이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경쟁 업체 홍보 임원을 두고 소위 "너무 나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면세점 계획 내용이 별로인데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고 면세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은 "회사 내부에서 절대로 기자나 언론을 폄하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이저 언론사만 찾아 다니는 경쟁사 홍보 임원을 비꼰 것이다.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대기업 홍보실의 홍보전이 뜨겁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자료 하나 달랑 내놓고 있을 뿐이지만 덩치가 큰 기업들의 홍보전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다.

자신들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간 후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기사 제목이나 행간을 고쳐 달라는 부탁은 약과다.

경쟁 면세점 입찰 업체에 안좋은 보도가 나오면 "그 업체를 좀 더 세게 써 달라"는 홍보 담당의 주문도 들어 온다.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정섞인 압력(?)도 곁들인다. 잘 써달라며 특별히 따로 만든 보도자료도 보내준다. 기자와 홍보인의 만남도 더 잦아졌다.

홍보인들이 그 정도니 입찰 기업 면세점 담당 임원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안봐도 상상이 된다.

특정 기업이 면세점 입찰을 따서는 안되는다는 정치인들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타당한 이유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세점을 선정해야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리능력의 배점을 낮추고 자본력을 평가하는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월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점수의 '총점'만을 공개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세부 항목 점수 공개는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을 신청한 기업 중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과 자산 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기준이 명시되지 않자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경쟁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쯤되면 가히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면세점 복마전(伏魔殿)이라 하겠다.

면세점에 입찰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대문짝만하게 소개된 기사 행간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모?" 정책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생활유통부장

이재용 부회장 생일날 해우소를 찾아라

기자 수첩

임 은 정 <산업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생일(23일)을 맞았다. 이 부회장의 48번째 생일상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메르스, 영업부진 등 고민거리가 차려져있다.

이 부회장은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1일 이 부회장은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후계자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1년간 와병중인 기간에 나름대로 안되는 방위산업 등은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IT와 의학, 바이오산업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편작업을 통해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4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 엘리엇은 두 건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다음달 1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300만주 위임을 목표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은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도 이 부회장의 큰 고민거리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주력사업도 고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S6' 시리즈 판매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지금은 주주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시점이다. '비 온 뒤 땅 굳어지듯', 이재용 부회장이 생일날 만큼은 평소 만나지 못한 해우소(解憂所) 같은 친구와 지인도 만나고 해서 여론의 동향을 냉정하게 파악한 후 재계 1위 그룹 후계자에 걸맞는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산업정책실장 박일준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승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 총무인력국장(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영훈 △국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현철 △부이사관 승진 ▷이정구 ▷이동혁 ▷김항섭 △과장급 전보 ▷재정협력과장 부이사관 구본근 ▷자치제도과장 서기관 한순기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서준한 ▷경영인력과장 김기훈

■ 국민안전처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동현 △국장급 승진 ▷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 소방감 김성곤 △국장급 전보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정술

■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광주지방기상청장 양일규

■ 춘천시

△4급 전보 ▷행정국장 김용은 ▷건설국장 신연균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보건소장 안동탁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안관수 ▷민원소통담당관 이주식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시문화재단 파견 이치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 호남매일

▷편집국장 이용헌

■ 헤럴드

▷이사 권충원

부고

▲이수행 씨 별세, 이종승(IR큐더스 대표이사)·종용·종웅 씨 모친상, 김종선(부천축협 이사)·송희양 씨 장모상 = 2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31-787-1500

▲김근식씨 별세, 김용찬(연합뉴스TV 대전충남본부 광고지사장)씨, 용덕(대전도시철도공사 홍보담당)씨 부친상 = 21일 오전 1시,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42-220-9870

▲이희순씨 별세, 김형남(SPC코리아 대표)·형욱(전 국무총리실 민정수석)·형석(자영업)씨 모친상, 임조순씨 장모상, 손영옥(국민일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씨 시모상 = 21일,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31-382-5004

▲김경육씨 별세, 김선화·원옥(금상초등학교 교사)·정재씨 부친상, 김진무·한상돌·조지현(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씨 장인상 = 21일 오전 1시,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층 25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수원 승화원. 031-219-6654

▲박철민(외교부 유럽국장)씨 빙부상 =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10-6507-6504

▲ 우상태씨 별세, 우성만(대구고법원장)씨 부친상 =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5호, 발인 23일 오전 5시30분. ☎ 051-711-4400.

▲신재중(서울산업과학기술대학 토목과 명예교수)씨 별세, 진호(대백콜렉션 부장)씨 부친상 = 21일 오후 3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 02-3010-2231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요"

생활 법률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간혹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얌체 집주인'들이 있다. 세입자들이 쓰던 방이 빠지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입자들은 이사갈 장소와 시기를 모두 정해놓은지라 이 같은 사태에 울화통이 치밀 수 밖에 없다.

얌체 집주인들에게 당하지 않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을까. 대안은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다. 세입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 소송이 제기돼 승소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 주택 및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을 심문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전세금 반환을 지연해온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허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반영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요구해 담보대출·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순위에서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세 요건을 갖춰야만 세입자에게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홍원기자 hong@

4천만원대로 별장으로 마음껏 쓰다가 안쓸땐 높은 수익까지!

별장·호텔·수익

세가지를 모두 누릴수 있다?

강원 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가능합니다!**

- 호텔최고운영사 산하HM 직접운영
-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4천만원대
- 확정수익 연12% (실투자대비)
- 10년간 4% 이자 지원
- 수익금 6개월 선지급 10년간 수익보장
-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국내최초!
- 윈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 별장으로 쓰다가 안쓸때는 고수익 발생!

- **관광인프라** 강원랜드, 워터월드, 365 세이프타운 테마파크, 레이싱파크, 하이원 스키장, 오투리조트(스키장, 골프장) 등
- **교통메리트** 영동선, 태백선,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31, 35, 38호선, 정선·태백 주요 관광지 리무진버스 운행
- **사계절수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황지연못(낙동강발원지), 검룡소(한강발원지), 태백산 눈축제 등 365일 다채로운 축제
- **특급부대시설** 국내 최대 야외 글램핑장, 테디베어 갤러리, 야외 레스토랑 , 야외 바비큐장, 야외 수영장, 카바나존

강원라마다호텔에 '테디베어 올림픽테마파크' 개관 예정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수익안심 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α로 환매 조건
- 10년간 연 12% 임대수익＋4% 이자지원

청약방법
- 외환은행 630-009601-061 · 청약금 :100만원
- 예금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분양문의 02) 756-2000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 운영사 (주)산하HM | 분양대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와 무관합니다.